



## 이머징 아시아의 중기 성장은 건전하나 향후 기관 개혁이 관건 - OECD 개발센터

**미얀마 네피도, 2014년 11월 13일** - 여러 OECD 국가의 전망이 비관적인 데 반해 이머징 아시아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건전한 성장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최신 동남아, 중국, 인도의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이 보고했다.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인도의 연간 GDP 성장률은 2015-19년 평균 6.5%로 점쳐진다. 아세안 10개국만 봤을 때 이 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015-19년 5.6%로 성장 동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내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인 개혁, 지역 통합, 기관 역량의 강화가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전망 보고서는 아세안 5대 경제권(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인도네시아(6.0%)와 필리핀(6.2%)의 주도로 중기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의 경제 전망은 안정적인 데 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평균 연성장 7%를 초과하면서 속도 면에서 치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머징 아시아의 2대 경제국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인구 변동, 투자 중심에서 소비 위주의 성장으로의 전환, 농업과 환경 및 교육적 문제 때문에 2015-19년 성장률이 6.8%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도는 새 정부의 개혁안이 추가적인 부양 효과를 보기 전까지 6.7%라는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머징 아시아 국가의 회복력이 두드러지기는 하나 외부 수요의 둔화, 지역 정치의 불안정성 등 위험 요소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린타로 타마키(Rintaro Tamaki) OECD 사무차장은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 비즈니스와 투자 정상회담에서 보고서 서문에 이와 같이 밝혔다. “2015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통합 과정을 가속화함은 물론,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공공 부문의 국내 역량을 구축하여 성장과 개발 과제를 부양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지역을 통틀어 기관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전망 보고서는 잘 설계된 포괄적 개혁을 적절한 속도로 추구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각국의 콘텍스트에 맞는 결과를 빚는 것 또한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OECD 개발센터장 마리오 페치니가 말했다.

각국의 중기 개발 방안은 정부의 우선 순위를 잘 드러내고 표현함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를 결과로 전환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별로, 또한 정책 분야별로 성과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국가중기개발계획(2010-2014)과 필리핀의 개발계획(2011-2016)은 양국 모두 강력한 경제 성과에 기여했으나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도 안겨다 주었다. 말레이시아의 10차 계획(2011-2015)이 부양한 강력한 성장률은 자국에 유리한 경로를 마련해 주었지만,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지속 가능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또 고소득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생산성 수준도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국, 인도의 공공 부문 개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효율성 지수와 기타 공공 부문의 성과 측정 부분에서 더 나은 순위를 기록하려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형편이다.

이와 유사하게 이머징 아시아는 시장이 의존하는 법의 지배라든가 계약 집행 같은 법체계와 민간 부문의 세금 집행, 규제 요구의 구축 면에서 복합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잠재적 약점으로 파악되는 이러한 분야를 해결하여 진정한 성장 잠재력을 깎아먹는 지하 경제에 대처하고 유연한 정규시장의 확장을 유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면 된다.**

OECD Development Centre, Kensuke Tanaka (+33 01 45 24 87 33), Bochra Kriout (+33 01 45 24 82 96) 또는 OECD Media Division (+33 01 45 24 97 00).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의 경제전망 예비 버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국가별 정책 주력 분야에 대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www.oecd.org/site/seao](http://www.oecd.org/site/seao).

전망 보고서는 2014년 OECD 각료급 이사회에서 시작한 OECD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에서 발표한다. 이 프로그램은 OECD와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 사이에 바람직한 행동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함을 목표로 한다.